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2026년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SASE) 학회 발표 및
중산층 연구 분야 해외 전문가 네트워킹

☐ 과제명

[기본26-009-00] 다중격차시대중산층재편과사회통합전략연구

☐ 출장기간

2026.6.30.(화)~7.6.(월)

☐ 출장국가(도시)

프랑스(보르도)

☐ 출장자

김성아 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6/30(화)	국가 간 이동	대한민국(인천) -프랑스(보르도)	-	
7/1(수)	프랑스(보르도)	SASE (Sciences Po)	- Ryotaro Takahashi(Keio University, Japan) - Toon Van Overbeke (Maastricht University, Netherlands)	학회 참석 및 한국의 자산 격차 발표 (세션: Taxation and Austerity)
7/2(목)	프랑스(보르도)	SASE	- Evans	AI 등 기술발전 배경 하 중산층의 사

		(Sciences Po)	Awuni(Universit y of Erfurt, German Institute for Global and Area Studies (GIGA), Germany) - Danat Valizade(Univer sity of Leeds, United Kingdom) - Sophia Seung-yoon Lee(Chung-Ang University, Korea)	회적, 문화적 불안정성과 정치사회적 갈등, 그리고 사회통합 연구 동향 공유
7/3(금)	프랑스(보르도)	SASE (Sciences Po)	- Howard Lune (Hunter College, CUNY, USA) - Jacqueline Johnson (Adelphi University, USA) - Johanna Mair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Italy) - Melisa Oezcelik (Hertie School, Germany) - Ijlal Naqvi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ingapore)	학회 참석 및 한국 청년 세대의 고립과 불안정성 발표 및 공동체 관련 연구 동향 공유 (세션: New Faces of Civic Life: Youth, Belonging, and Place-Based Connection)
7/4(토)	프랑스(보르도)	SASE (Sciences Po)	- Nadav Penn (Technion, 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 Israel)	행정데이터로 보는 중산층 자산 및 지역 분화 현상 및 연구 동향 공유
7/5(일)-	국가 간 이동	프랑스(보르도)-		

7/6(월)		대한민국(인천)		
--------	--	----------	--	--

2

출장 주요내용

①	국가 간 이동
일 시	2026.6.30.(화)
장 소	한국(인천) → 프랑스(보르도)
참석자	김성아 연구위원
대한민국 인천공항 출국, 프랑스 파리 경유 및 보르도 입국	
②	학회 참석 및 한국의 자산 격차 발표 (세션: Taxation and Austerity)
일 시	2026.7.1.(수)
장 소	프랑스(보르도), SASE(Sciences Po)
참석자	김성아 연구위원
□ 최근 정치경제학에서는 자산(특히 주택자산)이 재분배 선호, 불평등,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 ○ 기존 연구의 핵심 주장은 높은 자가보유율(homeownership)은 Asset-Based Welfare를 형성하며 공공 재분배에 대한 요구를 약화시키는 기제에 집중 ○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택 소유 여부(tenure)나 모기지 제도에 집중하여 조세, 복지, 연금, 재산세, 부동산 규제 등 제도적 맥락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 OECD 국가에서 어떤 제도들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심화시키는지 분석하고, 자산 기반 불평등을 조세·복지·주택제도를 통합한 관점에서 설명함 □ OECD 29개국의 최근 10년 OECD, IMF, World Inequality Database (WID) 및 기존 논문들의 개인자료를 이용해 데이터 구축 ○ 결측치는 Multiple Imputation으로 보완하고, 고정효과(Fixed Effects) 및 Lagged Dependent Variable 모형 사용. □ 사회지출과 민간연금은 하위계층의 자산 축적에 긍정적임. ○ 사회지출 증가와 민간연금 자산 증가는 Bottom 40%의 자산 비중을 증가시킴. ○ 결국 공공복지와 민간자산은 서로 대체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complementary) □ 재산세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불평등 감소 ○ 그러나 Top 1%의 자산집중 완화 효과는 제한적. ○ 재산세는 중하위 계층에는 효과적이지만 초고자산가에는 영향력이 약함.	

□ 한편, 높은 출산율, 높은 실업률, 높은 가계부채Bottom 40%를 약화시키는 요인

○ 즉, 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경제충격에 더욱 취약.

□ 결국 조세, 복지, 연금, 부동산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자산불평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산불평등은 개인의 자산보유 여부뿐 아니라 조세제도, 복지제도, 연금제도, 주택정책 등의 제도적 조합(institutional configuration)에 의해 결정됨.

③ AI 등 기술발전 배경 하 중산층의 불안정성과 갈등, 사회통합 연구 동향 공유

일 시 2026.7.2.(목)

장 소 프랑스(보르도), SASE(Sciences Po)

참석자 김성아 연구위원

□ AI와 자동화가 노동시장과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기술 변화의 영향은 기술 자체보다 노동시장 제도, 노사관계, 사회보장체계 등 제도적 환경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음.

○ 중소득국 38개국 비교분석에서는 자동화에 대한 불안이 국가의 자동화 수준과 숙련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안은 재분배 확대와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동화 시대에는 국가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상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한국 사례에서는 자동화가 기존 이론처럼 중숙련 일자리를 일률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내부의 제도적 경계를 따라 불평등을 재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자동화의 충격은 직무보다 노동시장 내 위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변부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시장 이탈이 심화되는 반면 내부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함.

□ 노동조합은 자동화를 단순히 저항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재교육과 직무전환을 지원하며, 생산성 향상을 노동시간 단축이나 조기퇴직 등 집단적 혜택으로 연결하는 등 기술의 활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행위자로 나타남.

□ 영국과 호주의 비교에서는 AI와 디지털화가 반드시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와 디지털 기술 수요를 확대하는 경향이 확인됨.

○ 다만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통제와 노동강도 역시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 참여와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제도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

□ 플랫폼 노동 사례에서는 알고리즘 관리가 기존의 노동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이를 법·제도적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고용 중심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기존의 고용지위 중심 사회보장체계를 노동 종속성과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종합하면, AI와 자동화는 노동시장을 일률적으로 양극화하거나 일자리를 감소시키기보다 노동시장 제도와 사회보장체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미래 노동에 대한 정책은 기술 확산 자체를 억제하기보다 노동시장 제도, 교육훈련, 노사관계, 사

회보장체계를 함께 개선하여 기술혁신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④	한국 청년 세대의 고립과 불안정성 발표 및 공동체 관련 연구 동향 공유 (세션: New Faces of Civic Life: Youth, Belonging, and Place-Based Connection)
일 시	2026.7.3.(금)
장 소	프랑스(보르도), SASE(Sciences Po)
참석자	김성아 연구위원
□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 ○ 한국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이 아니라,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insecurity)의 총체적 결과로 해석. ○ 궁극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 청년의 약 5%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음. ○ (정의) 사회적 접촉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지지망이 부재 ○ 2023년 전국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 고립은 사회경제적 불안정의 축적, 장기화된 성인기 이행, 실패의 개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많은 청년들이 저소득 가정, 갈등이 많은 가족,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 성장. - 이후 명문대 진학 실패, 안정적 일자리 확보 실패, 경쟁 압력,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경험. - 특히 가족, 친척, 친구, 또래와 실패를 공유할 관계망이 부족하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조사 결과 약 80%가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길 희망. - 주요 심리 상태는 지침(exhaustion), 무기력, 혼자서는 삶을 바꿀 수 없다는 느낌 - 원하는 변화는 일하기, 사람들과 어울리기, 또래처럼 평범한 일상 살아가기 등임. -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정부의 지원을 강하게 희망. □ 2024년 8월 한국 정부가 고립청년 지원 시범사업 시작. ○ 초기 상담, 일상 회복, 관계 형성, 일 경험 제공을 제공 □ 시범사업 성과의 사전·사후 조사 결과, 사회적 고립 감소, 은둔 경향 감소, 사회·경제활동 회피 감소, 타인과의 상호작용 증가, 상호지지 네트워크 형성, 삶의 만족도 유의하게 증가 □ 또한 참여자들은 다음의 정성적 변화를 경험함 ○ 다시 외출 가능, 사람 만나기 시작, 대화와 활동 참여 등 일상 회복 ○ 극심한 외로움 감소,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이 생김, 약속을 함께하는 관계 형성 등 관계 회복 ○ 프로그램 이후에도 연락 지속, 사적으로 만남 유지 등 관계 형성 ○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인식,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형성,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 삶을 계획하기 시작 등 자립 가능성 회복	

-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성격, 개인의 선택,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
 - 오히려 공동체, 사회통합,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pecter)으로 재해석해야 함.
- 결국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과제로서,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개입해야 함.
 -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나 평범한 일상(ordinary life), 존엄한 삶(dignified life)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한국에서 고립 청년들이 지원사업에 접근하는 주요 동인 중 하나는 정부에 대한 신뢰(trust, reliability)
 - 중앙정부에 의한 한국의 복지체계는 NGO 중심의 미국, 유럽 등의 체제와는 다소 상이

⑤ 행정데이터로 보는 중산층 자산 및 지역 분화 현상 및 연구 동향 공유

일 시 2026.7.4.(토)

장 소 프랑스(보르도), SASE(Sciences Po)

참석자 김성아 연구위원

- Asset Economy(Adkins et al., 2020): 현대 사회의 계층화는 노동소득보다 자산(특히 주택자산) 축적에 의해 결정됨.
 - 전통적 중산층 모델에서 자가주택(owner-occupancy)은 주거 소비(use value), 자산 축적(exchange value)의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성인이 이행과 중산층 안정성을 뒷받침함.
 - 그러나 오늘날 청년세대에서는 이 모델이 붕괴되고 있음.
- 청년 전문직은 고급 일자리가 집중된 대도시(superstar city)에 거주해야 함.
 - 하지만 주택 금융화(financialization)로 인해 임금 상승보다 주택가격 상승이 훨씬 빨라져 도심에서는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
 - 반대로 외곽지역에서는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중산층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부족함.
- 따라서 일자리와 자산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역설이 발생.
- 청년들은 이러한 Spatial Impossibility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 청년들은 도심에서는 임차(renting), 외곽에서는 주택 소유(owning investment property), 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거주 공간과 자산 보유 공간을 분리함.
- 사례국가: 이스라엘
 - 높은 주택 금융화⁸ 및 약화된 복지국가
- 분석자료: 행정 마이크로데이터, 심층면접 21건
- 분석 결과, 2011~2022년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주택소유자인 가구(renter-owner)가 3배 증가

○ 현재 민간 임대시장 가구의 약 14% 차지.

○ 이는 "Generation Rent"를 단순한 주택시장 패배자가 아니라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적극적 경제주체로 재해석함.

□ Spatial Decoupling을 만드는 두 가지 구조적 명령

○ 첫째, 거주 명령 (Imperative of Residence)

- 노동시장 접근을 위해 대도시에서 거주해야 함.

- 전문직 네트워크, 경력 형성, 상징적 소비, 직업적 정체성 유지 등 현재의 삶을 위해 도시에 살아야 함.

○ 둘째, 소유 명령 (Imperative of Ownership)

- Asset-Based Welfare 체제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미래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어려움.

- 따라서 외곽이라도 반드시 부동산을 보유해야 함. 즉, 미래를 위해서는 자산을 소유해야 함.

□ Spatial Decoupling 내부의 계층화

○ 첫째, Elite, Capital Maximization

- 최고의 자산가이자 도심 입차는 선택, 외곽 부동산은 투자, 전세, 자산 극대화 수단으로 생계와는 무관

○ 둘째, Upper-middle class, Lifestyle Subsidy

- 부모 자산 등 초기 자본 보유, 낮은 대출비율, 외곽 임대수익이 도심 생활비를 보조

○ 셋째, New middle class, Speculative Survival

-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서 현재는 열악한 주거 및 마이너스 현금흐름으로 생활수준 희생

- 그러나 미래 자산시장 진입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기적 투자 감수

- 중산층의 의미가 현재의 풍요 및 미래 자산 획득을 위한 인내로 변화.

□ 기존 연구에서 주택 소유자를 Winner로, 무주택자를 Loser로 간주하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임차와 소유를 동시에 수행하는 Hybrid 계층 존재를 발견

○ 중산층은 지역 내부에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공간 차이를 이용해 자산을 축적.

○ 즉, 도심에서 노동하고 외곽에서 자산 형성 및 임대료를 통해 도심 생활을 유지

□ Asset Economy 하에서 등장한 새로운 중산층 재생산 방식을 통해 Cross-regional extraction(지역 간 자산 추출) 발생

⑥	국가 간 이동
일 시	2026.7.5.(일)-7.6.(월)
장 소	프랑스(보르도) →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한국(인천)
참석자	김성아 연구위원
프랑스(보르도) 공항 출국, 네덜란드(암스테르담) 경유, 대한민국 인천공항 입국	

SASE2026 참석확인서



CERTIFICATE

OF PRESENTATION

This certificate is proudly awarded to

Seonga Kim

For presenting Housing, Taxes, and the Welfare State: Rethinking Wealth Outcomes Across the Income Distribution
at the 2026 SASE Conference,
1-4 July 2026
(Virtual conference 22-24 June 2026)
Sciences Po and University of Bordeaux, France

Dr. Annelies Fryberger

Dr. Annelies Fryberger

SASE Executive Director



CERTIFICATE

OF PRESENTATION

This certificate is proudly awarded to

Seonga Kim

For presenting Social isolation of young people in the fragmented society: Evidence and policy intervention from Korea
at the 2026 SASE Conference,
1-4 July 2026
(Virtual conference 22-24 June 2026)
Sciences Po and University of Bordeaux, France

Dr. Annelies Fryberger

Dr. Annelies Fryberger

SASE Executive Director

